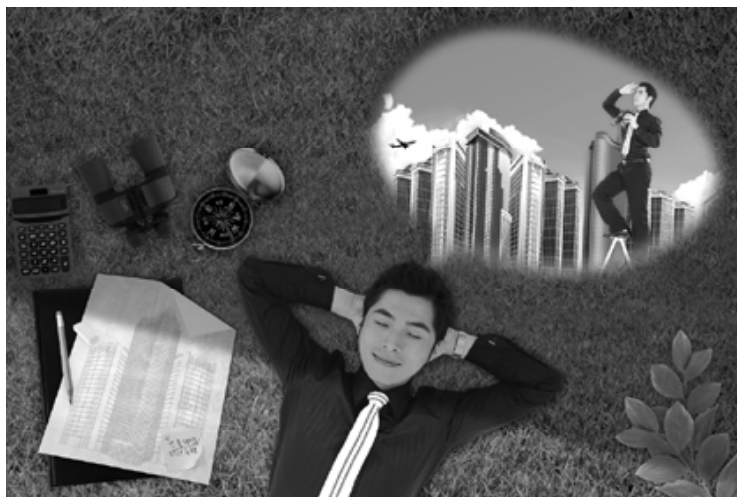


만물의 에너지적인 본질

|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 추미란 옮김 |

사회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힌 지각 내용을 떼어내면, 즉 우리 지각의 틀을 제거하면, 이제 드디어 더 근본적인 에너지적 현실에 눈을 뜨게 됨을 말합니다(편집자 주).



돈 후앙은 자신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들은 모두 소위 ‘고대의 마법사’라는 사람들이 고안하여 만들어낸 것임을 누누이 강조했다. 돈 후앙은 고대의 마법사와 현대의 마법사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고대의 마법사들은 스페인에 정복당하기 수 천 년 전에 멕시코에 살았던,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마법체계를 구축한 사람들이다. 돈 후앙은 그들이 명석하긴 했지만 지혜가 부족했다고 평했다. 반대로 현대의 마법사들은 잘 알려졌다고 사리분별에 밝고 필요하다면 마법의 방향을 바로잡을 능력도 겸비하고 있다고 했다.

돈 후앙은 꿈수행에 관련된 마법적 전제들은 물론 고대의 마법사들이 만들어낸 것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전제들이 꿈수행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책에서 고대의 마법사들에 대해 쓰고 논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책의 상당 부분이 이전의 책들에서 이미 해왔던 말들의 반복이나 부연이 될 것이다.

어떤 대화 중에 돈 후앙은 꿈수행과 꿈수행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법을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추상적인 것으로 돌려놓으려고 애쓰는 현대 마법사들의 고충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것이라는 게 뭐죠?” 내가 물었다.

“마법의 실질적인 부분을 말하네.” 그가 대답했다. “수행법과 기술, 그리고 사람에게 함부로 힘을 행사하는 것 따위에 마음이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것 말이야. 이런 것들은 모두 과거의 마법사들의 영역에 속해 있었지.”

“그럼 추상적인 건 뭔가요?”

“자유 의 추구, 집착과 망상 없이 인식할(perceive) 수 있는 자유 말이네. 모두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이야. 현대의 마법사들은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말한 거라네. 이들은

구체적인 이득에는 관심이 없어. 하긴 과거의 마법사들처럼 사회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지. 그들이 마을의 공식 예언자나 마법사 역할을 하는 모습은 볼 수 없을 거야.”

“현대의 마법사들에게는 과거가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돈 후양?”

“가치는 당연히 있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과거의 취향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불건전하고 음험한 데는 질색하는 편이지만 막힌 데 없이 무한한 사고는 좋아해. 하지만 내가 그들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것과는 별도로 고대 마법사들의 공은 인정해줘야 해. 우리가 지금 알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들이 처음으로 발견하고 행했던 일들이니까.”

돈 후양은 만물의 에너지적인 본질을 인식한 것이 고대 마법사들이 이룬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했다. 그 통찰은 굉장히 중요해서 결국 마법의 가장 밑바탕의 전제가 되었다. 이제 마법사들은 평생에 걸친 수행과 훈련을 통해 실제로 만물의 실체를 인식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소위 말하는 ‘보는’ 능력 말이다.

“만물의 에너지적인 본질을 인식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감지하게 되지.” 그가 대답했다. “인식(perception)의 사회적인 부분을 떼내어 버리면 만물의 본질을 인식하게 된다네. 지금도 자네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에너지일 뿐이야. 다만 그 에너지를 직접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틀 안에 들어오도록 인식을 가공하지. 그 틀이 바로 인식의 사회적인 부분이라는 거고, 바로 자네가 분리해내야 할 것이지.”

“왜 그 틀을 분리해내야 하나요?”

“왜냐하면 그 틀이 우리 인식의 범위를 좁히고 우리의 인식을 그 틀에 고정시켜서 그 틀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믿게 만들기 때문이네. 나는 지금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식이 사회의 밑바탕으로부터 바뀌어야만 한다고 확신하네.”

“사회 밑바탕의 인식이라구요?”

“세상이 유형(有形)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물질주의적인 확신 말이네. 우리가 세상을 물질적인 것으로 인식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너무나 진지하게, 열심히 애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확신을 사회의 밑바탕이라고 한다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나요?”

“모든 것은 에너지라네. 온 우주가 에너지야. 존재하는 것은 모두 에너지임을 명백하게 확인하는 것이 사회 밑바탕의 새로운 인식이 되어야 할 걸세. 그리고 사람들이 에너지를 에너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려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걸세. 그리고 나면 우리는 그 둘 중에서 맘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되지.”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물었다.

돈 후앙은 가능하다고 했고, 바로 그것이 그가 나와 다른 견습생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라고 했다. 돈 후앙은 첫째, 우리가 어떤 틀에 끼워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인식을 가공하고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둘째,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열심히 인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의 방법을 가르쳤다. 돈 후앙은 자신의 방식도 사실은 우리가 이 일상세계를 지금처럼 인식하게끔 만드는 데에 사용된 방식과 매우 비슷하다고 확언했다.

돈 후앙은 우리는 사회적인 틀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인식을 가공하는 함정에 빠져 있고, 그 함정은 우리가 그 틀을 선대로부터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힘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세상을 견고한 물질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에게는 생존을 위해 절박하게 요구되는 일이었던 게 틀림없네.” 돈 후앙이 말했다. “수십 세기를 그렇게 인식해왔으니 지금의 우리도 세상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을 수밖에.”

“저는 세상을 그렇게 말고는 달리 인식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항변했다. “의심할 것도 없이 세상은 물질의 세계입니다. 가서 한 번 부딪혀 보기만 하면 증명이 되지요.”

“물론 물질의 세계지. 거기엔 논쟁의 여지가 없다네.”

“그럼 지금까지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 세계가 무엇보다도 우선, 에너지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라네. 그런 다음에 비로소, 그건 또한 물질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 세계가 에너지의 세계라는 전제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직접 감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걸세. 그리고 자네가 방금 지적한 대로, 너무나 명백한 물질의 견고함에 부딪혀서 더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단 말일세.”

돈 후앙의 주장은 나를 극도로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당시의 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 내게 익숙한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돈 후앙이 힘들여서 해준 설명과 주장은 당시의 나로서는 너무나 괴이한 것이라서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지만 거부하기도 힘들었다.

돈 후앙이 한번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인식방식은 육식동물의 방식이라네. 먹이와 위험을 감지하고 식별하기에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지.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인식방식은 아니라네. 다른 방식도 있어. 내가 지금 자네에게 가르치려는 방식 말이지. 바로 만물의 실체

인 에너지 자체를 직접 인식하는 것 말이야.”

“만물의 실체를 인식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더 흥미진진하고 더 세련된 언어로 이해하고 구분하고 묘사할 수 있게 될 걸세.” 돈 후앙의 주장이었다. 그가 던지시 언급한 더 세련된 언어란 그가 선배들로부터 배운 것들을 뜻했다. 그것은 마법세계의 진실에 부합하는 언어이다. 그 마법세계의 진실이란 이성적 기반이 부재하며 우리네 일상세계의 사실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지만, 만물의 실체를 ‘보고’ 그 에너지를 직접 인식하는 마법사들에게는 자명한 진실이다.

그런 마법사들에게 마법의 가장 의미 깊은 행위는 당연히 만물의 실체를 ‘보는’ 것이다. 돈 후앙은 만물의 실체를 처음 ‘본’ 고대의 마법사들이 그 실체를 아주 잘 묘사했다고 했다. 그들은 만물의 실체는 무한공간을 향해 상상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뻗어가는 빛의 실과도 같다고 말했다. 인간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스스로를 자각하는 (conscious of themselves) 빛의 필라멘트와 같다는 말이다.

고대의 마법사들은 우주 만물의 실체를 ‘보는’ 것에서 나아가, 에너지인 인간의 실체도 ‘보았다.’ 돈 후앙에 따르면, 고대의 마법사들은 인간을 빛나는 커다란 알 모양으로 묘사하면서 ‘빛의 알’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돈 후앙은, “인간을 ‘볼’ 때 마법사들은 커다란 빛의 형체가 마치 곧은 뿌리가 달린 것처럼 땅의 에너지에 깊은 이랑을 남기면서 떠다니는 모습을 본다네”라고 말했다.

돈 후앙은 인간의 에너지는 계속 변해간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자신을 포함한 그가 아는 모든 투시가(seer, 보는 자 - 옴진이)들은 인간을 알 모양이라기보다는 공이나 심지어는 비석과도 같은 모양으

로 ‘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마법사들은 가끔씩 알 수 없는 이유로 알 모양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본다’. 돈 후앙은 알 모양 에너지를 가진 현대인은 고대인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돈 후앙은 우리를 가르치는 동안에 고대 마법사들이 발견한 것들 중에서도 그가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을 거듭거듭 되풀이해서 논하고 설명했다. 돈 후앙은 그것을 빛의 공인 인간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다. 그것은 강렬한 빛을 발하는 테니스 공만한 둥근 점으로서, 오른쪽 견갑골 돌출 부위에서 뒤 으로 약 60센티미터 떨어진 곳의 빛의 공 표면에 영구히 자리 잡고 있다.

그가 그것을 처음 설명해줬을 때 내가 그 모습을 잘 상상하지 못하자 돈 후앙은, 빛의 공은 인체보다 훨씬 크고, 그 강렬한 빛의 점은 이 에너지 공의 일부로서 등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진 곳의 날개뼈 높이에 위치한다고 설명해주었다. 돈 후앙에 따르면 고대의 마법사들은 그것이 하는 역할을 ‘보고’ 나서 그것에 조합점(asmsemblage point)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 조합점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데요?” 내가 물었다.

“인식하게 만들지.” 그가 대답했다. “고대의 마법사들은 인간의 인식이 바로 그 지점에서 조합되는(assemble) 것을 ‘보았지’. 그리고 살아 있는 존재에게는 모두 그런 강렬한 빛의 점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때부터 인식이란 것이 바로 그 지점에서 모종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거라네.”

“고대의 마법사들이 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그 조합점에서 모든 인식작용이 일어난다는 결론을 내렸을까요?” 내가 물었다.

돈 후앙은 첫째, 고대의 마법사들은 전체 빛의 공을 통과하는 우주의 무수한 발광 에너지 필라멘트 중에서 오직 소수의 필라멘트만이

그 조합점을 직접 통과하는 것을 ‘보았다’고 대답했다. 물론 조합점은 전체 빛의 공에 비해 아주 작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다음에, 그들은 조합점보다 약간 큰 광구*가 항상 그 조합점을 감싸고 있으면서 그곳을 곧바로 통과하는 필라멘트들의 밝기를 크게 강화시키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고대의 마법사들은 두 가지를 더 ‘보았다.’ 조합점은 그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 첫째고, 조합점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을 경우 그 사람의 행동이 정상적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그의 인식과 의식도 정상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두 번째로 본 것이었다. 조합점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광구가 정상적인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유별난 행동을 보이고, 그것은 그의 의식이 달라져서 인식의 방식이 이상해졌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이 모든 관찰로부터 고대의 마법사들은 조합점이 원래의 위치로부터 많이 벗어날수록 그에 따라 행동도 더욱 이상해지니, 그것은 분명히 의식과 인식이 이상해졌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내가 ‘보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늘 ‘~와 같은 모양을 한’, 혹은 ‘~처럼 보인다’고 말한다는 것을 주목하기 바라네.” 돈 후앙이 내게 주지시켰다. “마법사들이 ‘보는’ 것은 모두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어떤 것과 비교하는 수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네.”

돈 후앙은 마법사들이 조합점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작은 광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그런 어려움의 가장 좋은 예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것을 ‘빛’으로 묘사하지만 사실 투시가들은 그것을 눈을 감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빛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돈 후

* 인체를 감싸는 것은 ‘빛의 공’, 조합점을 감싸는 것은 ‘광구’로 옮겼음. 역주

양과 같은 마법사들은 그 독특한 모습을 묘사해야만 하기에 조합점을 빛의 점이라고 하고, 후광이 그것을 감싸고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돈 후앙은 인간이 너무나 시각적이고 육식동물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인간이 ‘보는’ 것은 모두 육식동물의 눈이 보는 방식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돈 후앙에 따르면 조합점과 그것을 감싼 빛이 하는 듯한 일을 ‘본’ 고대의 마법사들은 거기서 진일보한 설명을 하나 더 제시했다. 즉, 인간에게 존재하는 조합점은 그것을 감싼 빛을 조합점을 직접 통과하는 우주의 에너지 필라멘트들에 집중시킴으로써 즉석에서 자동적으로 그 필라멘트들을 조합하여 세상에 대한 일관된 인식을 탄생시킨다는 것이 그 설명이다.

“당신이 말하는 그 필라멘트들이 어떻게 세상에 대한 일관적인 인식으로 조합된다는 거죠?” 내가 물었다.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그가 잘라서 대답했다. “마법사들은 에너지의 움직임에 ‘보지만’ 단지 에너지의 움직임을 ‘보는’ 것만으로 그 에너지가 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는 없으니까 말 이야.”

돈 후앙은 그 무수한 의식의 에너지 필라멘트가 조합점을 통과하는 것을 ‘본’ 고대의 마법사들은 그 필라멘트들이 조합점을 통과하는 동안 그것을 감싼 빛에 의해 합쳐지고 축적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의식을 잃거나 죽기 직전인 사람의 빛(조합점을 감싼 광구)은 극단적으로 어둡고, 시체의 경우엔 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을 본 고대의 마법사들은 이 빛이 곧 의식이라고 확신했다.

“조합점은 어떻게 되나요? 죽으면 조합점도 사라지나요?” 내가 물었다.

돈 후앙은 조합점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광구는 생명력과 의식의 표시이기 때문에 죽은 생물에게서는 조합점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고대의 마법사들은 의식과 인식이 늘 함께 어울려 다니며, 그것들은 조합점 및 그것을 감싸고 있는 광구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

“고대의 마법사들이 잘못 ‘봤을’ 가능성은 없나요?” 내가 물었다.

“자네에게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법사들이 잘못 ‘보는’ 법은 없다네.” 그의 말투에서 논쟁을 불허하는 태도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으로부터 도출한 결론이 틀릴 수는 있어. 경험이 없고 수양이 덜 되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그런 화를 피하려면 마법사들도 어떤 식으로든 마음 수양을 해야 한다네.”

그러면서 돈 후앙은 태도를 부드럽게 바꾸더니, 마법사가 자신이 ‘본’ 것을 묘사하는 수준에만 머문다면 훨씬 더 안전한 일이겠지만 자신에게만이라도 본 것을 설명하고 결론을 내리고 싶게 만드는 유혹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도저히 거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고대의 마법사들은 조합점의 위치변화가 에너지 배치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보고’ 연구할 수 있었다. 돈 후앙은 조합점이 다른 위치로 움직이면 새로운, 무수한 발광 에너지 라멘트의 다발이 그 위치에 모인다고 했다. 고대의 마법사들은 그것을 ‘보았고’ 조합점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의식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인식은 자동적으로 바로 그 새로운 지점에서 조합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조합점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로부터 인식되는 세계는 더 이상 우리의 일상적인 세계가 아니라고 했다.

돈 후앙의 설명에 따르면 고대의 마법사들은 두 종류의 조합점 위치변화를 구분할 수 있었다. 그 하나는 빛의 공(인간 에너지)의 표면

이나 내부에서 위치를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런 움직임을 조합점의 변위(shift)라고 불렀다. 또 다른 하나는 빛의 공 바깥으로 움직이는 것이었고 그들은 이것을 조합점의 이동(movement)이라고 불렀다. 고대의 마법사들은 변위와 이동이 각각 서로 다른 성질의 인식을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조합점의 ‘변위’는 빛의 공의 표면상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낳는 세계는 아무리 기묘하고 불가사의하고 믿을 수 없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영역 안에 있다. 빛의 공 전체를 통과하는 에너지 필라멘트들이 곧 인간의 영역이다. 반대로 조합점의 ‘이동’은 빛의 공 바깥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영역 밖의 에너지 필라멘트를 개입시킨다. 그런 필라멘트를 인식하면 인간적인 요소라고는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상상과 이해를 초월한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당시 나의 사고체계에는 검증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만 돈 후앙, 이 조합점 문제는 정말 억지스럽고 도무지 받아들이 수가 없어서 뭘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 후앙이 대꾸했다.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네. 조합점을 ‘보는’ 것 말이야. ‘보는’ 건 어렵지 않네. 우리를 한 곳에 붙들어두는, 각자의 마음속의 보호벽을 깨는 것이 어렵지. 그 벽을 깨는 데 필요한 건 에너지뿐이라네. 그 에너지만 있으면 저절로 ‘보게’ 될 걸세. 요령은 자기만족과 거짓 안전망으로 가득한 요새를 포기하는 걸세.”

“돈 후앙, 저에게는 ‘본다는’ 것이 엄청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단지 에너지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에너지만 있으면 ‘돼’. 나를 믿게나. 자신을 확신시키는 일이 가장 어렵다네. 확신을 가지려면 나왈(Nagual; 중앙아메리카 문명에서 동

물로 변신한다는 마법사 - 옹킨이)을 신뢰해야 해. 마법이 경이로운 것은, 마법사란 모름지기 모든 것을 자신의 경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야. 내가 자네에게 마법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자네가 그것들을 암기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기를 바라서야.”

신뢰의 필요성 문제라면 돈 후앙이 확실히 옳았다. 돈 후앙 아래서 배운 13년 중 초기단계였던 그 당시로서는 그의 세계와 그의 사람들과 친분을 맺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여기서 ‘친분을 맺는다’는 말은 그의 세계와 그 세계 사람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아무런 편견 없이 그를 나왈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마법사 세계에서 돈 후앙이 수행하는 전반적인 역할은 그의 동료들이 그에게 부여한 호칭으로 요약될 수 있다. 동료들은 돈 후앙을 나왈이라고 불렀다. 나왈에 대해 내가 들은 설명은 이렇다. 나왈은 투시인들이 ‘두 배로 밝은 빛의 공’이라 부르는 특별한 종류의 에너지 구조를 지닌 사람으로, 여자일 수도 남자일 수도 있다. 투시자들은 그렇게 특별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마법사의 세계로 들어오면 특별한 힘과 지도자의 능력을 갖게 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나왈은 한 마법사 집단의 타고난 안내자이자 지도자인 셈이다.

처음에는 돈 후앙을 그만큼이나 신뢰해야 한다는 생각이 불편하기 그지없어서 불쾌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그런 마음을 토로했을 때 돈 후앙은 그 자신도 그의 스승을 신뢰하는 데 꼭 그만큼 힘들었다고 말했다.

“지금 자네가 한 말을 나도 내 스승에게 똑같이 했었다네.” 돈 후앙이 말했다. “내 스승은 ‘나왈을 신뢰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도할 수 없고, 그러면 삶의 찌꺼기를 청소하여 자유로워질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하시더군.”

돈 후앙은 스승의 말이 얼마나 지당했는지를 거듭해서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되풀이해서 말했다. 나는 질식할 것 같은 종교적 환경에서 자랐고 그 끔찍한 여파를 견뎌왔기 때문에 돈 후앙의 스승의 말과 그에 대한 돈 후앙의 묵종은 내가 어릴 때 배워야 했고 경멸했던 순종의 교리를 연상시켰다. “나왈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마치 종교적 신조를 설파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내가 말했다.

“자네는 뭐든 믿고 싶은 것을 믿을 테지.” 돈 후앙은 담담하게 응수했다. “어쨌든 나왈 없이는 아무런 게임도 시작할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네. 나는 그것을 알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 나 이전의 다른 나왈들도 그랬어. 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야. 나도 그렇고, ‘나왈 없이는 길도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지, 나왈이 나왈인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추상적인 세계, 곧 영(spirit)의 세계를 더 잘 비춰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려는 것뿐이네. 그게 다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영과 직접 만나는 것이니까. 그 영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나왈)과의 교류는 단지 부수적인 것일 뿐이야.”

나는 결국 돈 후앙을 나왈로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그러자 그가 말한 대로 굉장한 안도를 느꼈고 따라서 그가 힘들게 가르치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도 대단히 높아지게 되었다.

가르침의 과정에서 돈 후앙은 조합점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 토론하는 데 특히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번은 내가 그 조합점이 우리의 육체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물었다.

“조합점은 우리가 보통 육체라고 인식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네.” 돈 후앙이 대답했다. “조합점은 우리의 에너지 자아인 ‘빛의

알’의 한 부분이야.”

“조합점의 위치는 어떻게 바뀌나요?” 내가 물었다.

“우리 에너지 형체의 안이나 밖으로부터 일어나는 에너지의 흐름 또는 동요를 통해서야. 에너지 흐름은 보통 무작위로 생겼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지만 마법사들은 에너지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예측가능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지.”

“당신도 그 흐름을 느끼나요?”

“마법사라면 다 느낀다네. 느낌으로 말하자면 사실 모든 인간이 느끼지. 보통 사람들은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 그런 느낌엔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말이야.”

“그 흐름은 어떤 느낌인가요?”

“행복을 느끼자마자 찾아드는 모호한 슬픔 같은 약간의 불편함이야. 그 행복도 슬픔도 원인이 없으니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근거 없는 변덕쯤으로 치부할 뿐, 알려지지 않은 세계의 실질적인 공격으로는 절대 보지 않지.”

“조합점이 에너지 형체의 외부로 옮겨가면 어떻게 되나요? 밖에서 떠돌아다니나요, 아니면 여전히 빛의 공과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조합점이 에너지 형체의 윤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형체의 가장자리를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라네.”

돈 후앙은 인간의 에너지 형체가 완전히 변하는 것이 그런 조합점 ‘이동’의 마지막 결과라고 말했다. 그 에너지 형체는 이제 공도 알도 아니고 담뱃대 같은 모양을 띠게 된다고 한다. 담뱃대 주둥이가 바로 조합점의 위치가 되고 대통 부분이 남아 있는 빛의 공인 썸이다. 그 후에도 조합점이 계속 멀리 이동하면 결국은 빛의 공이 에너지의 가

은 줄로 변하기까지 한다.(끝)

- 이 글은 '자각몽, 또 다른 현실의 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카를로스 카스타네다**(Carlos Castaneda) | 그는 1925~1998년 페루 태생 미국인 인류학 박사이다. 1968년에 출판된 《돈 후앙의 가르침(The Teachings of Don Juan)》을 필두로 일련의 마법 체험기를 발표하여 타임지(1973년 3월 5일자)의 커버스토리로 실리는 등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는 UCLA의 인류학 대학원생이었던 1960년에 돈 후앙 마투스라는 이름의 멕시코 야키족 마법사를 만난 이후 6년에 걸쳐 그의 가르침을 따라 비일상적 의식 상태에서 체험한 또 다른 현실세계의 소식을 일반과 학계에 전함으로써 그 진위에 대한 열띤 논란의 초점이 되었다. 그가 쓴 열한 권의 저서는 17개 국어로 번역되어 800만 부가 팔렸다.

그를 가르친 원주민 마법사 돈 후앙은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유머와 냉철한 지성을 겸비한 안내자로서 저자를 자신의 정식 제자로 입문시켜 결국은 또 한 사람의 마법사로 키워낸다. 카스타네다는 1973년부터 로스앤젤레스의 저택에서 칩거에 들어가 이 책의 서문에 언급된 세 여자동료와 함께 내면의 여행을 계속하다가 1998년에 죽었고, 그의 세 동료 중 둘은 의문 속에 행방불명되었다. 이 책은 그의 아홉 번째 저작으로서 자각몽 수행을 통해 체험한 마법의 세계를 이야기한다.

역자 | **추미란**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석사를 수료하고 인도 델리대학교 역사학과와 철학과에서 각각 인도 고대사와 인도 철학으로 석사 학위와 준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대학 불교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경향신문 주간지 〈뉴스메이커〉 인도 통신원으로 활동했고, 격월간지 〈불교와 문화〉에 인도 수행 문화에 대해 연재했으며, 대한무역진흥공사 주관사업 상담 통역 일을 했다. 현재 인문서 자기계발서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며 정신세계와 자기계발 관련 출판 기획을 겸하고 있다. 번역한 책으로 《생의 아침에 문득 돌아보다》, 《구루, 종교, 권위주의》, 《전쟁의 역사》, 《혼자 걷다》, 《소울 포드》, 《피의 광장》, 《평화만들기 101》 등이 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자각몽, 또다른 현실의 문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저 | 추미란 옮김 | 정신세계사 | 정가 14,000원



1960년 멕시코 야키족 마법사 돈 후앙을 만난 이후 6년에 걸쳐 그의 가르침을 따라 비일상적 의식상태에서 체험한 또다른 현실세계의 소식을 세상에 전함으로써 진위에 대한 열띤 논란을 일으킨 저자가, '자각몽'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저자가 자신을 정식 제자로 입문시킨 돈 후앙에게서 꿈수행 기술을 배우며 경험한 상상 초월의 자각몽 이야기뿐 아니라, 그를 문으로 삼아 체험한 또다른 현실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진다.